

2025년 11월 1일 토요일

시편: 119장 169~176절

후렴: (주여, 길 잃은 양처럼 헤매나니 이 종을 찾아주소서)

주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시므로
내 입술이 찬송을 쏟아낼 것이라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므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 것이라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으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잃은 양 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 함이니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길 잃은 양처럼 헤매나니 이 종을 찾아주소서)

성경말씀: 요한계시록 7 장 9~12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중보기도:

사랑이신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가정 공동체에 복을 내리시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과도 사랑을 나누며 즐거이 살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진정 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마음에서 다 버리고, 빈 마음이 되고, 참사랑이신 주님만 갖고자 합니다.
오, 주님만이 제 소유요, 제 전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때만이 제 영혼이 안식을 얻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서 구원을 갈급해 애걸하면서 살려고 해야 합니다.

허울 좋은 선생이라는 너울을 벗어 버리고 싶습니다.

길가에 벗어 던져진 헌신짝이 부럽습니다.

떨어진 짚신을 아무 데나 끌고 다니던 도적이요 음란자요 간음자임으로 헌신짝으로 알아주는 것이 저에 대한 사랑입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시편: 63장

후렴: (주여,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은 주를 그리워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는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다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하리다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리다

칼의 세력에 붙인바 되어 여우의 밥이 되리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은 주를 그리워하나이다)

성경말씀: 로마서 14 장 7~9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중보기도: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주님의 교회에 진리의 빛을 주시어, 하나님께 사랑받는 모든 피조물과 서로 의존하고
있음을 몸소 느끼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저를 긍휼히 여기시어 진리의 빛을 비춰주소서.
그리스도는 사랑, 생명이니, 항상 믿음으로 묻고 귀 기울여 듣게 하소서.
모든 생명,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하나님 나라를 알아 선을 행하게 하소서.

(성금란)

오늘의 묵상 글:

사랑의 불이 타고 나면 죄도 남지 않습니다.
사랑의 불이 타고 나면 온 천지만물이 깨끗해집니다.
사랑의 불이 타고 나면 사람의 영혼이 거룩해집니다.
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런 사랑의 불이여!

(저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김준호)

시편: 5장

후렴: (주의 크신 인자하심 안에서 나는 새 힘이 솟나이다)

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어
나의 이 속삭임을 들어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주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부터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나이다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는 것은
주께서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는 주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나이다

주의 풍성한 인자하심이 너무도 크시니
나는 그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리다
주를 경외하는 마음 아로새기고
성전을 향하여 꿇어 엎드리나이다

주여, 주의 정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 심중이 심히 악하나이다
그들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원토록 기뻐 외치리라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주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 같이 은혜로 저를 감싸 주신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크신 인자하심 안에서 나는 새 힘이 솟나이다)

성경말씀: 이사야 40 장 1~5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그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와 그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와 그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와 그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중보기도:

노년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겉 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영적 권위를 갖고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의 은혜로 주신 기회를 회피하는 이 자식이옵니다.
환난의 기회만 있으면 회피하였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환난을 도리어 기뻐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수도의 목적은 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덕을 완성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일치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 사랑이 예수의 사랑과 하나이고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슴에 품으신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시편: 24장

후렴: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임금님께서 들어가신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며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주의 것이로다
주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그것을 굳히셨도다

주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이웃에게 거짓 맹세치 않는 자로다

주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리라
이는 주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찌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찌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 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주시요 전쟁에 능한 주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찌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찌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 가신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주께서 곧 영광의 왕이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임금님께서 들어가신다)

성경말씀: 요한복음 6 장 66~69

그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중보기도:

교회마다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성도들 각자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자비의 주님,
저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혼의 평화를 주시고,
안식을 주실 이는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니,
오직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는 늘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체험하였습니다.
바른 수도자의 길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 없이는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자는 길이 수도생활인데 모든 수도회의 창설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의 삶과 피를 인류에게 주시고 사랑을 완성했기 때문에 사랑의 길을 내신 분은 예수님 한 분 뿐이십니다.

시편: 36장

후렴: (생명의 샘이 진정 주께 있고 우리는 주의 빛으로 빛을 보나이다)

악인의 죄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의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이다
그는 스스로 자급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않고
미워함도 받지 않겠다 함이로다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간계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나쁜 길을 가면서 악을 물리치지 않네

주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까지 닿나이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공정은 깊은 바다 같아 사람과 짐승을 돌보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의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고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정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생명의 샘이 진정 주께 있고 우리는 주의 빛으로 빛을 보나이다)

성경말씀: 누가복음 6 장 48~49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춧돌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탁류가 그 집에 부딪치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춧돌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탁류가 부딪치매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중보기도:

모든 정치인이 정의와 참 지혜를 알고 올바른 일에 더 관심과 실천하는 마음을 심어 주시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나라와 모든 국민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이 땅 위에 있는 동안
제게 주어진 환경은
순경이나 역경이나 다 제 영혼을 깨우치고 구원하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될 것을 믿게 하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38. 순명

하느님의 딸들이여!
하느님께 순명(順命)을 보이신 성모님의 희생을
신앙의 모범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모님의 순명은
하느님 향한 무한 사랑과 신뢰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자신의 온 생애가 녹아난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이러한데도
성모님 순명(順命)의 도를 따르기로 한 여러분은
하느님의 딸들입니다.

(주님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글 재편집)

시편: 57장

후렴: (새벽을 흔들어서 나는 깨우리라 그리고 주를 찬양하리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리다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하리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주께서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살려 주소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찌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그들 이는 창과 살이요
그들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소서
그들이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쳤고
내 앞에 함정을 팠으나 그들이 스스로 빠졌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든든하나이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찌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찌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대저 크신 주의 인자는 하늘에까지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새벽을 흔들어서 나는 깨우리라 그리고 주를 찬양하리다)

성경말씀: 이사야 60 장 1~7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 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웃의 숫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중보기도:

삶과 평안의 보금자리인 저희 가정들을 축복하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덕으로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 내며, 삶의 모범으로 이웃과 세상을 변화하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일에 자비로 사랑할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그 어떠한 것에도 달게 희생할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침묵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
그 보혈은 능하지 못할 것이 없사오니
우리에게 그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인생에 있어 일평생 가장 필요한 것은 한 가지 사랑 뿐입니다.
마리아는 참된 길, 그 사랑, 그 자비, 가장 좋은 인생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그 사랑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다시는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누가복음 10장 38~42절 참조)

(저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김준호)

시편: 51장

후렴: (주여, 내 죄에서 주의 얼굴 돌이키시고 내 모든 허물을 없애 주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갭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시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주는 제사를 즐거하시지 않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하시지 않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성을 쌓으소서
그 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리니
그들이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내 죄에서 주의 얼굴 돌이키시고 내 모든 허물을 없애 주소서)

성경말씀: 히브리서 10 장 10~14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중보기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며 책망하시는 내적인 역사에 성도들이 순간순간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도예로 전심으로 힘쓰며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워 실천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우리 영혼은 주님의 산 말씀에서만 삽니다.
말씀을 붙어 넣으소서.
제 속에 말씀을 붙어 넣어 주소서.
산 말씀으로 살게 해 주소서.
산 말씀에서 힘을 얻도록 해 주소서.
산 말씀이 저를 굳세게 해 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저는 더럽습니다.
제 죄 씻어 주실 이는 주님이십니다.
더 죄 짓지 말게 해 주실 이도 주님뿐입니다.
주님만이 저를 보호하시지 아무도 저를 보호하고 죄에서 간직해 주실 분은 없습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2025년 11월 8일 토요일

시편: 119장 153~160절

후렴: (주의 말씀은 진실이며 주의 의로운 법규는 영원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았으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리 있으니
그들이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않는 탓이니라
주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원수가 많으나
나는 주의 법에서 떠나지 않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저들
나는 그 배신자들을 보며 역겨워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주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말씀은 진실이며 주의 의로운 법규는 영원하나이다)

성경말씀: 출애굽기 14 장 13~14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중보기도:

하나님께서 몸소 창조하시고 유지하고 계시는 아름다운 자연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그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그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가꿀 수 있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제 허물 깨닫고, 남의 허물 상관 말고,
스스로 겸비하고 사람들 실수를 관대히 보게 해 주소서.
아버지 앞에 자복케 해 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얼어붙은 대지에 봄바람이 불면 모든 만물이 소생합니다.
모세가 겨울바람이라면, 주님은 봄바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봄바람이 불어와도 살아 있는 생명에게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암탉 같으신 주님, 달걀 같은 제 영혼을 품어 주십시오! 분명 제 영혼이 변화 받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저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김준호)

2025년 11월 9일 일요일

시편: 118장 1~9절

후렴: (주 안에 피신함이 훨씬 낫도다 사람을 믿기보다 훨씬 낫도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리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리다
이제 주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리다

내가 고통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주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주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주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 안에 피신함이 훨씬 낫도다 사람을 믿기보다 훨씬 낫도다)

성경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 장 3~5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중보기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들이 큰 어려움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 뜻을 따라 복음전파 사역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평화의 왕이시여,
성스러운 주님의 심장에서 흘러내리는 고통의 핏방울이
제 가슴속에 젖어들 때만 제 영혼이 평화롭습니다.
이 평화 안에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예수님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이 알아듣습니다.
무식한 농부라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시편: 42장

후렴: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내 영혼이 하나님을 그리나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보일꼬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축제일을 지키는 무리와 함께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드높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나이다

낮에는 주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 같이 내 원수가 나를 비방하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늘 말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를 살려주시는 분 내 하나님을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내 영혼이 하나님을 그리나이다)

성경말씀: 신명기 4 장 29~31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중보기도:

의로우신 주님, 정치인들을 주님의 사랑과 정의로 이끌어 주시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먼저 살피며 모든
이에게 이로운 정책을 마련하고 올바르게 실현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자비의 주님,
뜻을 계시하시는 성령이여,
미리 아시는 하느님이여!
저와 동행하여 주소서.
앞으로 남은 때를 주님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일의 뒷처리를 주님께서 친히 홀로 하시기 바라나이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우리 가운데 성소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들도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받아들일 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길을 내시고
프란치스코 성인과 소화 데레사 성녀께서 남기신 말씀의 부스러기를 주워 모아서 우리들이 먹고 삽니다.
개인의 의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번지수를 분명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됩니다.
내가 발견했다, 우리가 발견했다 하는 것은 십자가도 없고, 겸손도 없고, 자랑뿐이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시편: 43장

후렴: (내 기쁨 나의 즐거움이신 나의 하나님께 나아 가리다)

하나님이여, 나를 헤아려 주소서
경건치 않는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소서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서럽게 지내야 하리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만 바라라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내 기쁨 나의 즐거움이신 나의 하나님께 나아 가리다)

성경말씀: 시편 30 장 11~12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중보기도:

인도자이신 주님, 가정 또는 사회 안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로하시고 살피 주시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며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무엇이나 제 것은 없애고 그리스도를 얻어야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저를 붙잡고 계시오니
저도 주님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선 당신을 버리고 저를 붙잡으셨으니,
저도 저를 버리게 하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살려고 살려고 하면 점점 더 죽어갑니다.
죽으려고 죽으려고 해야 살아납니다.
그게 참 심령의 법칙이고 영계의 법칙입니다.

온전한 사랑의 법칙입니다.

(동광원 집회 설교, 김준호)

시편: 77장

후렴: (하나님의 도는 지극히 거룩하시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새도록 쳐올린 손 지칠 줄 모르고, 내 영혼은, 위로도 마다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제 불안하여 근심하니
생각을 거듭할수록 내 정신 아찔해지나이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나는 그 먼 옛날을 회상하고
아득히 먼 세월을 되새겨 보리다
밤이면 마음 속 깊이 생각에 잠기면서
내 영혼 스스로 묻고 있나이다

주께서 우리들을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그 인자하심이 영영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지 않으셨는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극히 높으신 분이 오른손을 바꾸어 버리셨다고

나는 알고 있나이다 주께서 하신 일들을
예전에 행하신 주의 기적들 익히 알고 있나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셨나이다

주께서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을
몸소 팔로 주의 백성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나이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발하며
주의 화살도 사방으로 흩날렸나이다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뢰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취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양 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나님의 도는 지극히 거룩하시다)

성경말씀: 사도행전 11 장 21~24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중보기도:

자비하신 주님, 사회의 불평등 속에서 소외되고 또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굽어보소서. 그들이 고단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모든 이들과 함께 공동선이 실현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불 속에
이 몸도 훨훨 타서 먼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곳은 울타리도 없고, 국경도 없고,
사랑의 평화가 있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사람이 일평생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영안(靈眼)이 뜨게 되면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119장 17~24절

후렴: (나는 이슬에서 지나가는 한낫 나그네이오니, 제게 주의 계명을 숨기지 마소서)

주의 종에게 은혜를 내리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으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주는 교만한 자를 꾸짖으시니
주의 계명을 어기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리다
내가 주의 법을 지켰으니
훼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방백들도 앓아 나를 훼방하였으니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주의 법은 나를 깨우쳐 주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나는 이슬에서 지나가는 한낫 나그네이오니, 제게 주의 계명을 숨기지 마소서)

성경말씀: 요한복음 14 장 16~18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중보기도:

희망이신 주님,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부활의 빛이 그들 가슴을 비추어주소서.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은 단지 지나가는 한순간임을 깨달아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용기를 얻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품속에 숨을 때만 두려움은 떠나가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고린도후서 12장 9절 참조)

내가 허물을 갖고 있을 때 내가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내 병을 안 고쳐 주시는 것은 나를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시편: 51장

후렴: (주여, 내 죄에서 주의 얼굴 돌이키시고 내 모든 허물을 없애 주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갭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시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주는 제사를 즐거하시지 않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하시지 않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성을 쌓으소서
그 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들이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내 죄에서 주의 얼굴 돌이키시고 내 모든 허물을 없애 주소서)

성경말씀: 마가복음 8 장 27~29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니라.

중보기도: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도와주소서. 온갖 조롱과 수모를 이겨 내신 주님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우리도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헤쳐 나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주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의 아버지입니다.
죄를 질 때는 두려운 아버지이지만,
회개하는 아들에게는 피눈물을 같이 흘리시는
우리의 아버지요, 자비의 아버지입니다.
성령의 감화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해 주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주를 믿고 극진하신 자비와 한량없으신 엄위를 느껴야 바로 믿고 따르는 일입니다.
사랑 안에서 극진히 감사하고, 죄를 인하여 두렵고 떨림이 참 계시로 주님의 복음을 안 것입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시편: 92장

후렴: (의인은 주의 집안에 심어져 하나님의 뜰에서 꽃을 피우리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신 주여,
주를 찬송함이 좋기도 하나이다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아침에는 주의 사랑을 알리며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전하는 일 좋으니이다
주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다

주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
주의 생각이 심히 깊나이다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은 풀 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찌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리니
주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주여,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흠어지리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 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의 보응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주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번성할 것이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주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의인은 주의 집안에 심어져 하나님의 뜰에서 꽃을 피우리다)

성경말씀: 이사야 50 장 4~6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 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중보기도:

핵가족화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소외되는 젊은이 또는 장년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족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되고 세대 간의 이해 폭이 넓어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의식주 염려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십시오.
참으로 예수님을 거짓말이 없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아! 하느님, 아! 예수 그리스도, 오! 성령, 참 좋으신 임이어! 하느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주의 법칙을 그 속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 품성을 진·선·미라고 합니다.
그 성품을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이라 부릅니다.
하느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며 '좋아라!'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만물 속에서 그 우주의 법칙인 그리스도의 품성이 마음에 부딪치면 감격하여 '아하, 좋아라!' 하고 직관합니다.

(하느님의 섭리와 은총, 김준호)

시편: 93장

후렴: (주의 법은 너무나도 견고하고 주의 집은 거룩하나이다)

주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주께서 능력을 입으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않나이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주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주의 능력은 많은 물 소리 보다도
또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나이다
주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원하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법은 너무나도 견고하고 주의 집은 거룩하나이다)

성경말씀: 누가복음 21 장 12~14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 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 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중보기도:

지역과 교회, 공동체와 개개인 안에 있는 이기주의가 사라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생명까지 미워하고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결론은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피가 흐르는 예수님의 사랑의 용광로에는 그 어떠한 사람,
그 어떠한 죄인을 던져도 녹아서 그 영혼이 거룩하게 되어 하나가 되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소망이요, 사랑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그 큰 사랑의 용광로는 곧 예수의 심장입니다.
그 사랑은 만능이 있습니다.

그 은총은 전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 단 한 번 몸을 바치셨고

그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히브리서 10장 10절)."

그 사랑의 심장에는 그 어떠한 죄를 드러도 다 타버리고 영혼이 깨끗해지는 속죄의 피가 있습니다.

그를 일러 '사랑의 제단' 이라 부릅니다.

(저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김준호)

시편: 84장

후렴: (순례의 길을 떠날 적에 주께 힘을 얻는 자 복되나이다)

만군의 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리니,
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주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순례의 길을 떠날 적에
주께 힘을 얻는 자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만군의 하나님,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며,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며,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낫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으니
주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주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임이니다

만군의 주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순례의 길을 떠날 적에 주께 힘을 얻는 자 복되나이다)

성경말씀: 신명기 7 장 7~10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하나님이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지사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와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중보기도:

인자하신 주님, 온갖 불의와 혼란이 기승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교회를 지켜주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의 지킴이로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맡겨진 복음을 충실히 실천하고 전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결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원수를 사랑함은 주님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한 알의 소화小花의 씨가 썩어서 많은 새로운 소화가 영글도록 하신 예수님! 그것이 주님의 은총이요, 신비였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소화의 씨가 떨어져 자라고 있으니, 이것은 예수님의 은총이요, 능력이요, 덕분이요, 자비입니다.

시편: 85장

후렴: (자비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함께 입 맞추리라)

주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 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나이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노여움을 품고 계시렵니까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되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주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 마음 주께 돌아오는 이들에게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화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에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다

사랑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리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리다

주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적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자비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함께 입 맞추리라)

성경말씀: 이사야 26 장 19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중보기도:

위로자이신 주님,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사회를 굽어살피소서. 소외된 이들을 몸소 위로하시고, 저희도 주위의 소외된 이들을 찾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각각 자기들의 급선무입니다.
이것이 평화의 첫 계시입니다.
이 길만이 개인이나 모임이나 모든 인류의 평화의 길입니다.
이 겸손의 덕이 매일매일 제 삶 속에 스며들게 하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예수로 용서받고 마음 속에 의의 새싹이 돋아나니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이 있습니다.
그 증거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올시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시편: 86장 1~10절

후렴: (주는 좋으시고 인자하시며 한없는 자애를 베푸시나이다)

주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다
주여, 나의 기도예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다
대저 주는 광대하여 기적을 행하시니
주만 홀로 하나님이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는 좋으시고 인자하시며 한없는 자애를 베푸시나이다)

성경말씀: 열왕기상 19 장 4~8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와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사십 주 사십 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중보기도:

성도들의 생애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과 인내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증거를 보이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아버지는 저를 일 초 동안도 안 잊으시건만,
저는 주님을 늘 잊어버리나이다.
주님, 더 기억하는 은혜내리소서.
성령이시여, 아버님과 성령의 보호 밑에 늘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안심하고, 즐겁게, 주님 뜻 기다리게 해 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오늘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왜 내일로 미루는가요?
이렇게 급한 문제를 뒤로 미루는 버릇은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미루는 일은 죽은 뒤에 지옥 가는 일입니다.
오늘 이 한 걸음을 잘 딛으면 천국 가는 데 도움이 되고,
오늘 한 걸음을 잘못 딛으면 지옥 가는 일이 됩니다.

시편: 87장

후렴: (나의 모든 샘이 주 안에 있나이다)

거룩한 산 위에 터전을 삼으셨으니
주께서 시온의 성문들을 사랑하시네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더욱 즐겨 하시며
하나님의 도성아 너를 두고 놀라운 일들이 일컬어지도다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주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나의 모든 샘이 주 안에 있나이다)

성경말씀: 에베소서 6 장 18~20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중보기도:

공정하신 주님, 공직자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심어주시어, 비리와 부정의 유혹을 떨쳐 내고 언제나 정직하고 청렴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제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게 걱정이 있고 번뇌가 있다는 것은 다 불신 때문입니다.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보시고 믿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번민이 있는 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모두 제 탓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그곳이 곧 천국입니다.” 십자가는 곧 도道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못 박혀 있는 저 푸른 하늘의 태양은 그 아득한 날에 벌써 아상(我相)이 죽어 있었습니다.

만물은 벌써 자아가 죽었기에 그토록 고요하였습니다.
자기가 죽고 빛을 내는 태양은 열을 발하여 사랑이 되고 빛을 발하여 지혜가 되었습니다.
도가, 진리가, 생명이 곧 임이십니다.
그분이 곧 진리요, 도道요, 생명입니다.
그분의 덕이 곧 사랑, 기쁨, 평화입니다.
오! 그곳이 곧 천국입니

(하느님의 섭리와 은총, 김준호)

시편: 51장

후렴: (주여, 내 죄에서 주의 얼굴 돌이키시고 내 모든 허물을 없애 주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갭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시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주는 제사를 즐거하시지 않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하시지 않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성을 쌓으소서
그 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리니
그들이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내 죄에서 주의 얼굴 돌이키시고 내 모든 허물을 없애 주소서)

성경말씀: 고린도전서 2 장 1~5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중보기도: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깊은 깨달음으로 영적인 안목이 자라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하나님
이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아버지이심을 인정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여, 받으소서.
저와 사람과 물질을 다 주님께 바칩니다.
내가 나를 어쩔까도, 내가 남을 어쩔까도, 내가 물질을 어쩔까도,
다 주님께 맡겨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오! 사랑의 아버지, 아버지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열어 보이시려고 택하신 사람들 밖에는 아버지의 자비의 사랑, 그 은총을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 은총, 그 사랑, 그 자애를 넣어 주시려고 골라낸 그릇 밖에는 부어줄 그릇이 없습니다.
주인이 쓰려고 골라온 그릇은 크거나 작거나 잘 생기거나 못 생기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택한 그릇은 잠잠히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저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김준호)

시편: 119장 145~152절

후렴: (새벽부터 일어나 도움을 청하며 주의 말씀에 희망을 두나이다)

주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으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으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나이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어주소서
주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좇는 자가 가까이 왔으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주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법을 궁구하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새벽부터 일어나 도움을 청하며 주의 말씀에 희망을 두나이다)

성경말씀: 누가복음 12 장 29~31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중보기도:

모든 성도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주님의 청지기로서 뛰어난 근면성과 절약 정신으로 얻은 부를 공공의 선을 실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선용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회개시켜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와 사랑의 보혈에 항복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아가 죽고, 예수님같이 다시 나게 하소서.
그 뜨거운 은총의 사랑으로 성화되는 전 인격적인 체험을 통하여
주님같이 되는 것이 소원이나이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주님, 제 혈기 없애 주소서.
혈기가 너무 팽창하나이다.
사나 죽으나 주님 뜻대로만 하옵소서.
무슨 문제보다 주님 마음 얻어야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도 만나고 무슨 일도 생각해야겠습니다.
낮아지는 마음 주옵소서.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2025년 11월 23일 일요일

시편: 118장 10~18절

후렴: (주의 오른손이 큰일을 하셨도다)

못 백성이 이 몸을 에워쌌으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 같이 소멸되었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주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주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고 높이 들렸으며
주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주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않으셨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오른손이 큰일을 하셨도다)

성경말씀: 누가복음 23 장 33~38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아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중보기도:

보호자이신 주님, 오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살피 주시고, 좀 더 나아지리라는 희망으로 힘을 얻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모든 일에 주님의 심장으로 하게 하소서.
온 정성을 다하여 일을 처리할 때
땅 위에서 평안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어떠한 일에서든
"아들아, 내가 함께 하리니 앞 일에 겁을 내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사랑을 줄 때에 만족하고, 받을 때는 씁니다.

그것을 모르고 받으려만 하고 주려 않는 데서는 사랑도 사랑의 결과인 만족과 평안을 맛보지 못합니다.

주려 하지는 않고 받으려만 하는 데는 만족도 평안도 위안도 없습니다.

시편: 90장

후렴: (주여, 새벽부터 넘치도록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으며
산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나이다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간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 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 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수명이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년수의 자라는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며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주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고케 하신 날수대로
우리의 화를 당한 햇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주 하나님의 어지심이 우리 위에 내리시어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새벽부터 넘치도록 자비를 베푸소서)

성경말씀: 창세기 12 장 1~4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와 말씀의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

중보기도:

이 땅의 한국교회가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술한 난관에 부딪혀 패배주의와 상처로 가득 찬 청년 세대들이 복음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과 소명을 발견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우리 영혼은 오로지 자기 부정 속에 참 안식에 들어갑니다.
영혼의 참된 기쁨은 형제 자매의 잘못을 자기가 범한 것임을 깨닫고
책임을 지고 자기 스스로 죽어질 때만 물밀듯이 찾아옵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해 주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의 비밀은 평화입니다.
임께서 친히 못 박히셨기에 우주가 저토록 고요합니다.
십자가는 고요함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아(無我)입니다.
도(道)는 십자가입니다.
진리는 무아입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아상(我相)을 버린다 함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곳에 평화가, 안식이, 기쁨이, 사랑이 있습니다.
오! 바로 그곳에 하느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느님의 섭리와 은총, 김준호)

시편: 101장

후렴: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이르게 하소서)

내가 자비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주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흠 없는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다
불의한 일을 감히 열썌하지 않으며
내 눈앞에 결코 두지 않으리다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않으리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않으리로다

그 이웃을 그욕히 하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않으리로다
내 눈이 이땅의 충성된 자를 살피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 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주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이르게 하소서)

성경말씀: 베드로전서 4 장 7~11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중보기도:

장애인들을 위한 관심이 잘 활성화되고, 주위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로 그들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사랑의 아버지,
아버지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열어 보이시려고 택하신 사람들 밖에는
아버지의 자비의 사랑, 그 은총을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 은총, 그 사랑, 그 자애를 넣어 주시려고
골라낸 그릇 밖에는 부어줄 그릇이 없습니다.
주인이 쓰려고 골라온 그릇은 크거나 작거나 잘 생기거나 못 생기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택한 그릇은 잠잠히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1. 마음 낮춤(下心)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우리의 '길'(요한 14, 6)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길이십니다.
그 길은
하느님의 거룩한 복자(福者)들이 뒤따른 길이며,
우리 또한 하느님의 은혜중 가장 큰 것으로
마음의 성소(聖所)에 받았습니다.
이 길은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것이요,
마음 낮춤은
겸손과 가난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셨던 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낮은 마음(下心)을 갈망할 때
예수님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마음 낮춤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글 재편집)

시편: 108장

후렴: (하나님, 하늘 위에 나타나소서, 주의 영광 온 땅에 빛나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으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깟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숙곳 골짜기를 척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라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시지 않나이다
우리를 도와 원수를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원수를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나님, 하늘 위에 나타나소서, 주의 영광 온 땅에 빛나소서)

성경말씀: 고린도후서 9 장 6~11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흠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중보기도: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사회의 아픔과 갈등을 싸매고 치유하는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사랑하게 해 주소서.

주님 기쁘게 해 드리고 슬프시지 않게 되기를 비나이다.

이 땅에 참 사람을 보내주소서.

마음 너그럽고 깨끗한 사람을 보내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예수님의 영화는 성령이시오.

성령의 영화는 복음이요, 복음의 영화는 신앙이요, 신앙의 영화는 예절이요,

예절의 영화는 도덕이요, 도덕의 영화는 법이요, 법의 영화는 주님이요, 주님은 하나님의 면류관이십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시편: 143장

후렴: (주여, 주의 영은 선하시니 고르디 고른 땅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는 진실하고 의로우시니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얹어서
나로 죽은지 오랜 자 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나이다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하오니
주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으니이다
주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주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주의 영은 선하시니 고르디 고른 땅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성경말씀: 누가복음 12 장 15~18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공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중보기도: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불치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을 몸소 위로하시고, 치유의 희망을 언제까지나 잃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제 가슴에서 자비의 샘이 터져 강이 되어 흐르게 하소서.
주님께서 가지신 보배 가운데 자비만이 주님의 유일의 보배이시니,
앞으로 제가 구하는 것은 그 자비를 얻는 것입니다.
그 자비를 제게 주신다면,
성삼위와 전 인류와 모든 영혼들에게
참 평화와 강이 흐를 것을 믿습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교육의 이념은 인격 개조를 하는 것입니다.
인격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생명이 가치있게 쓰여지고 있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시간부터 귀하게 쓰는가에 있습니다.
지식의 유무, 물질의 유무, 건강 불건강이 문제가 안 됩니다.
칼 라일은 "너의 생명이 먼저 하나님과의 정당한 관계를 맺으라." 했습니다.

시편: 51장

후렴: (주여, 내 죄에서 주의 얼굴 돌이키시고 내 모든 허물을 없애 주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갭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시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주는 제사를 즐거하시지 않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하시지 않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성을 쌓으소서
그 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들이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내 죄에서 주의 얼굴 돌이키시고 내 모든 허물을 없애 주소서)

성경말씀: 이사야 53 장 6~10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중보기도:

모든 성도가 날마다 삶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성령이여, 제 안에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은총으로 내리시는 성령의 성품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본질을 읽을 때,
제 영혼 속에 잉태된 그리스도의 성품이 기뻐 뛰나이다.
그 말씀들이 제 가슴에 스며들어
제 영혼이 항상 기뻐 뛰도록,
성령이여, 제 안에 오시옵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오, 그리운 인격(人格)이여! 예수님 같은 인격이 얼마나 그리운지요.
인격적인 말은 참되기 때문에 믿음을 주고 안심이 됩니다.
사람 속에 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 하느님! 제 가슴에 안심의 영을 새로이 창조하여 주십시오!

(그분께 드리는 고백, 김준호)

시편: 92장

후렴: (의인은 주의 집안에 심어져 하나님의 뜰에서 꽃을 피우리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신 주여,
주를 찬송함이 좋기도 하나이다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아침에는 주의 사랑을 알리며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전하는 일 좋으니이다
주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다

주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
주의 생각이 심히 깊나이다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은 풀 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찌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리니
주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주여,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흠어지리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 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의 보응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주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번성할 것이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주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의인은 주의 집안에 심어져 하나님의 뜰에서 꽃을 피우리다)

성경말씀: 마태복음 18 장 1~6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중보기도: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주님의 백성인 저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어, 저희가 세상의 빛과 어둠을 가려내고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직 평화의 열쇠는 자기는 십자가에 죽으라고 내어주고 주님의 것이 되는 것뿐입니다.
이는 주님의 품에만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자고 일어나니 여러 그릇을 도적맞았다 합니다.
잃을 것을 잃어졌습니다.
가난한 형제자매가 그것이라도 가져다가 한 때라고 만족했으면 좋겠나이다.
가져와도 받지 않을 심경(心境)입니다.
적은 것을 잃으므로 큰 것을 안 잃을뿐더러 도리어 본성을 찾아지기 원합니다.
박을 심어서 그릇으로 써야겠습니다.
제가 주님에게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주님 말씀과 아닌 것을 분간해야겠습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2025년 11월 30일 일요일
(대림절)

시편: 149장

후렴: (북 치며 수금을 타며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하리로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그들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춤 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리로다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리로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복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 왕들은 사슬로, 그들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네
기록한 판단대로 그들에게 시행하리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북 치며 수금을 타며 주를 찬양하여라)

성경말씀: 마태복음 24 장 42~44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중보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아버지는 저를 일 초 동안도 안 잊으시건만,
저는 주님을 늘 잊어버리나이다.
주님, 더 기억하는 은혜내리소서.
성령이시여,
아버님과 성령의 보호 밑에 늘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안심하고 즐겁게 주님 뜻 기다리게 해 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아버지께서 주님께 이 몸을 팔아주셔야겠습니다.
주님께서서는 피로 저를 사주셔야겠습니다.
저는 달게 기쁨으로 팔려 가야겠습니다.
성령의 소개로 매매가 성립되게 하옵소서.
